

## 한·중 간 이어도海領有權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송성대\*

### Geographical Study on the Boundary Dispute of Ieodo Sea between Korea and China

Sung Dae Song\*

**요약** : 이어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인접국인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정합적인 논리를 개발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어도의 자연경관의 특징과 형성과정을 자연지리학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건강부회적인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한다.

지질·지형과 관련한 지질사를 봤을 때 이어도가 제주도의 부속암초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인문학적인 증거, 즉 《산해경》에 대한 중국측의 해석은 우려할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독일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항국간과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을 혼동하고 있어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강단지리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을 계도하고 관계기관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주요 자료와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 이어도항, 시원적 권리, 주권적 권리, 내대륙붕, 중간선 원칙

**Abstract** : With regard to Ieodo, South Korea and China argue that Ieodo belongs to their territory respectively, considering its history. However, both parties haven't suggested concrete evidence to support their argument. Even if they suggest corroborative facts, they are distorted or exaggerated like myth. Therefore, it is important by what side primitive title and effective control are exercised in settling the problem of Ieodo. The issue was to suggest coherence logic by finding concrete geographical facts in the East China Sea the time of applying a method of boundary decision followed by the marine act, namely principle of median line and principle of equidistance.

China has argued that China should occupy most of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on the basis of silt, a deposit of the continent. However, the base of the East China Sea is a part of Eurasian Plate. In addition, a geographical contribution to formation of the continent shelf by the Korean Peninsula is equal to the Chinese Continent.

Ieodo is 'Island of myths' in China, but is 'Island of legend' suggested by concrete facts in South Korea. Therefore, its cultural title and primitive title are belonged to South Korea, before its historical title.

**Key Words** : Ieodotopia, primitive right, sovereign right, inner-continental shelf, principle of median line

---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Jeju National University), songsd@jejunu.ac.kr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동중국해의 이어도 해역의 영토적 분쟁 실체를 제시하고 그 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지리학 적 패러다임에 의해 밝히고자 한다. 밝혀진 내용은 정책 대안, 즉 향후 한·중 간에 EEZ경계획정 논의시 한국정부의 논리를 재정비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어도 분쟁의 실상을 이해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집단지성(集團知性)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영토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지리학계에서 아직도 이어도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바 이 연구가 지리학도들이 이어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이어도에 대한 연구 활동 내지 실적은 지리학 분야에서는 단지 필자에 의해 몇 편의 줄고(Song, 2007a; 2007b; 2009)가 나오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주로 법적(국제법) 분야에서 전유물이 되다시피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자연과학분야에서는 해양학, 수산학, 지질학, 기상학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한·중 간의 해양경계획정 및 분쟁현황에 관하여 사회과학(국제법·국제정치학) 분야와 인문학(신화학, 역사학, 문화지리학) 분야 그리고 자연과학(해양학, 지질학, 수산학, 자연지리학) 분야에 대한 국내의 관련 선행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선별해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어서의 진행은 먼저 이어도에 대한 자연지리학적 성과에서 해당 요소를 도출 기술하여 그 경관적 특성을 구명하고, 이 결과와 한·중 양측의 대립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 이어도의 도출된 자연지리학적 요소와 상관시켜 관계(실증) 해석을 하였다. 특히 해양법 연구일 경우 방법론상 자연지리학이나 문화지리학에 대한 기초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리학에 대한 이해 없이 해양법에서 논하는 탈베그(thalweg, 最深河床線) 원칙이나 중앙선 원칙, 등거리선 원칙 그리고 시원적 권원(primitive title), 문화적 권원 등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는 불가능하다. 해양법은 궁극적으로 지표, 즉 공간과 장소에 관한 법이다. 그것을 문장 기술만으로 연구하고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도나 그림 등의 제시와 자연과 인간 관계의 해석과 설명이 뒤따랐을 때 그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 2. 이어도의 위치와 경관

이어도를 한국에서는 ‘섬[島]’으로 인식하여 호칭 표기하고 있다. 한강 하구의 하중도로 존재하는 ‘나들섬’은 모래 사주(cay)로서 여름 증수기에는 물에 잠겨 버려 보이지 않지만 역시 섬이라 부른다. 이어도를 서양에서는 Socotra ‘Rock’, 중국에서는 蘇岩 礁라 불러 이어도를 섬(島, island)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어도는 자연지리학적인 정의를 한다면 섬이 아니고 해면 밑에 있어, 주위보다 돌출해 있는 해저지형물(undersea features)로서의 간출지(low-elevation)이다. 간출지에 대한 보다 명료한 설명은 ‘바위’가 아닌 ‘어두울’ 暗자를 써서 ‘암초(暗礁, sunken rock)’라 했을 때 가능하다. 부연하면, 저조면 밑에 항상 잠겨있는凸형의 미지형물은 은암(隱岩) 또는 은초(隱礁), 고조면 위에 항상 솟아 있으면 현암(顯岩) 혹은 현초(顯礁)라 한다면 저조면과 고조면 사이에 있는 바위나 사주는 간출암(干出岩)·간출초라 하게 되는 것이다

해양문화를 가졌던 고대 이래의 제주인들은 이러한 간출암을 다른 암초(岩礁)와 정확히 구별하여 일상어로 사용하여 왔다. 은암을 ‘든여’ (‘잠겨 있는’ 礁라는 뜻), 현암을 ‘난여’ (‘나와 있는’ 礁라는 뜻)라 하며 간출암은 ‘고분여’ (‘숨박꼭질 하는’ 礁라는 뜻)라 부른다. 제주인들은 이와 같이 바다 속 해중(海中)의 크고 작은 바위 모두 포함하여—‘여’이어 [礁]라 불렀다. 따라서 이어도를 한자로 굳이 표현한다면 礁島라 해야 할 것이다.

간출암인 이어도는 1년의 대부분을 물 밑에 숨어 있어 해수면에 파랑을 일으키다가 간헐적으로 물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춘분과 추분 무렵에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외에도—이어도의 평균 파고는 3~6m가 되나

태풍 때는 16m 내외가 된다—파도가 심할 때는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어도의 호칭을 당초에 압초라 하지 않고 ‘파도 일으키는 처소’라는 뜻으로 ‘하로우수’ [波浪]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는 파고 21m까지를 의식해서 건립되었지만, 이와 같이 이어도는 간출암이기 때문에 중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 또한 섬이 갖는 어떠한 해양관할권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영해 기선으로도 삼을 수 없다. 다만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있기 때문에 기지 외연 500m까지는 안전수역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는 있다.

간출암인 이어도를 ‘섬[島]’이라 부르고 논의하는 것은 문화적 혹은 관습적 용어사용법에 따른 것이다. 언어 자체가 이데올로기라 하듯이 이어도는 단순한 해저지형물이 아닌 제주도민들에게는 살아 숨쉬는 영혼의 섬터, 즉 ‘궁극의 장소’로서의 섬(이어도郷, Ieodotopia)이 되기 때문이다.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상에 있는 이어도는 한·중·일 3국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가운데 해역에 있는 섬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수중 암초(暗礁, Rock)이다. 한국과 중

국간에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이어도가 한국에 지리적 권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거 마련을 위해서는 이어도의 지리적 경관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이어도는 영해 기선으로 볼 때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 Sheshandao)로부터는 287km, 일본의 도리시마(鳥島)로부터는 276km, 한국의 마라도로부터는 149km 떨어져 있는,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있는 암초다(수심 40미터 기준 면적: 약 40만m<sup>2</sup>). 이들 3개의 섬들은 각각 해당 국가의 영해 기점이 되고 있지만 주민의 거주 역사가 오랜 한국의 마라도와 달리 중국의 서산다오와 일본의 도리시마는 무인도에 해당한다.

이어도는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B.P. 160만년 이후) 시기에 퇴적된 하부의 쇄설성 퇴적층과 이를 얇게 덮는 상부의 화산쇄설성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생대 제 4기 동안의 몇 차례 반복된 빙하기와 간빙기 기간 중 반복적인 퇴적과 화산작용, 그리고 차별적인 침식작용의 영향을 받아 응회구(응회환)의 원지형이 현재와 같이 독특한 지형경관을 이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어도의 가장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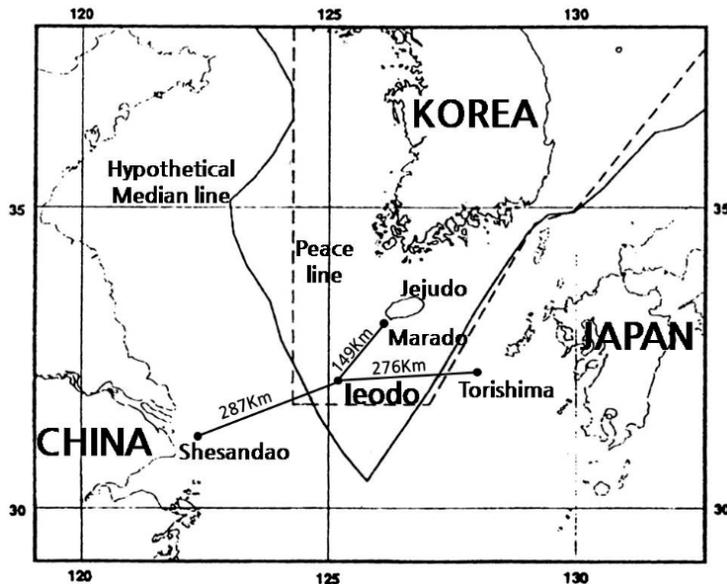


Figure 1. Situation of Ieodo. 이어도의 관계적 위치.

부분은 화성 쇄설류(화쇄류: pyroclastic flow)에 의해 운반 퇴적된 응회암층이 기존의 퇴적층을 피복한 후 풍화 침식에 의해 삭박되고 남은 잔류지형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응회구 내지 응회환으로 생겨난 이어도의 해저지형은 뚜렷한 구성 암상 차이에 따른 차별 침식을 통해 현재와 같이 국부적인 봉우리 형태만 남기고 분화구의 부분이 침식되어 파식대 형태의 지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Jeong and Sim, 2001, 537-57). 이러한 이어도의 화산 응회암층 지질구조는 180만년 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제주 본섬의 측화산의 하나인 송악산과 맥을 같이 한다. 이어도는 대륙이 침강하거나 융기하여 형성된 육도가 아닌 제주도 와 똑같은 양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대륙과 연장된 섬이라 주장한다.

이어도의 입체경관을 보면 주변의 평평한 수심 50m를 기준한 지방기복, 즉 정상 암봉까지의 높이는

45.4m이고 그 위로 4.6m에 해수면이 펼쳐진다. 정상 암봉은 크고 작은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도의 1.4km의 기저부 길이를 갖는 동·서 단면도는 대칭적 형태를 보이나 1.8km의 기저부 길이를 갖는 남·북 단면도는 이어도의 생성진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룬다. 남북 단면도는 Figure 2에서 보듯이 이어도의 정상은 기저부 북단에서 약 600m 아래 지점에 형성되어 있고 그 남쪽으로 급애를 이룬 후 곧 평탄한 지형이 1.2km로 뻗어 내려가고 있다.

이 평탄한 지형은 의심의 여지없이 과거 빙하기 또는 수차례의 소빙하기를 맞으면서 형성된 파식대인 것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로 북상해 오는 태풍의 63%가 이어도를 지나고 있는 이 파식대의 형성은 이 태풍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지금의 이어도 북사면의 경사각을 참고하여 그 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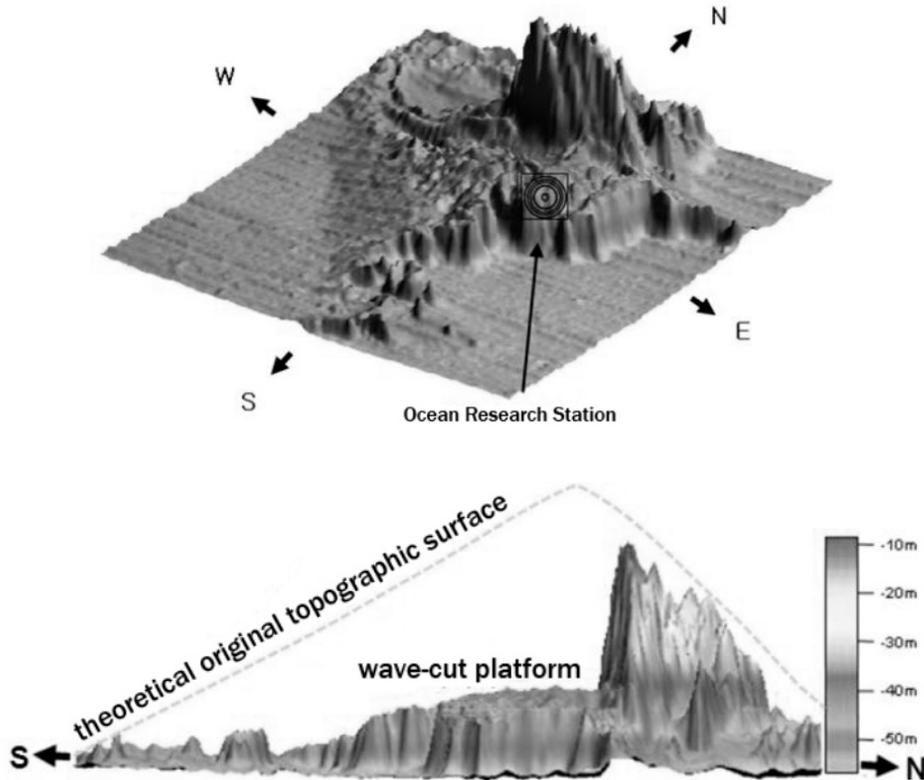


Figure 2. Solid Scenery and Cross-sectional Diagram. 이어도의 입체경관과 단면경관. (Source: Sim and Min, 2007)

형을 추정하면 당초 이어도의 생성시는 지방기복이 약 80m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이어도가 어느 시기에는 해수상에 약 45m 정도 솟아 있는凸형의 섬 형태를 띤 현초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제주의 고대인들은 ‘육지 부근이 아닌’ 특이한 대양 중의 ‘이어’ [磯]를 보고 <이어도항로상>의 랜드마크로 혹은 피항가능처로 인식되었고 결국은 양가성(兩價性)을 갖는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鄉(Ieodotopia) 전설이 제주섬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어’에 ‘도’(島)자가 붙어 이어도가 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지만, 이어도 전설이 단순히 픽션(fiction)으로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과학적 팩트(fact)가 있기에 객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도 전설의 스토리는 픽션이지만 전설의 ‘토대’는 팩션(faction)이다. 이 부분은 존재와 사유 내지는 인식과 정의를 구별하여 논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어도의 평면 경관은 전체적으로 마름모꼴을 이루는데, 50m 수심선을 기준할 때, 면적은 여의도광장(0.388km<sup>2</sup>)의 약 5배가 되는 2.0km<sup>2</sup>가 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지점인 파식대의 한가운데에 건설되어 있다.

### 3.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 1) 중국의 이어도해역 변경공정

이어도가 한국인(제주도민)들에게 인지된 것은 전설에서 보듯이 이미 시원대부터지만 근대에 이르러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01년 영국해군이 이어도에 좌초한 자국의 소코트라호 이름을 따서 이어도를 Socotra rock으로 해도에 표기하여 알려면서부터이다.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이어도가 하로우스라 불렸고 해방 이후 최남선에 의해 ‘파랑도(波浪島)’라 불리기 시작했는데 1951년 9월 23일 한국 해군과 언론인 홍종인 씨가 파랑도의 위치 확인 시도를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파랑도를 발견하여 ‘대한민국 영토 파랑도(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내려 놓았다. 그리고 1951년 7월 19에는 양유찬 주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독도·대마도·파랑도’를 한국령으로 요구하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52년 1월 18일에는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의해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 Syngman Rhee line)을 세계에 공표하였는데 이때 이어도는 평화선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가 한국의 EEZ 안에 위치한다는 판단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건설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EEZ 경계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어도가 한국 EEZ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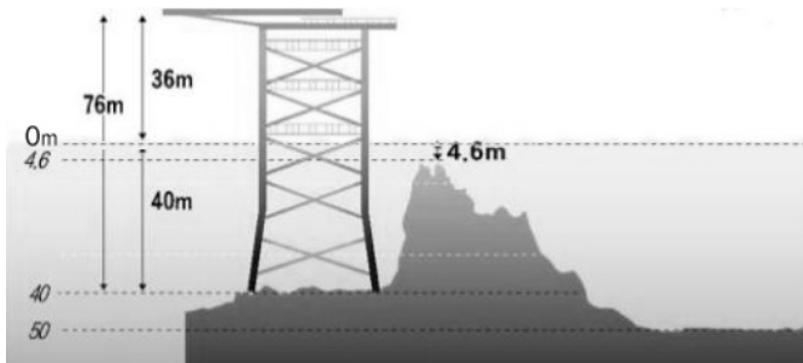


Figure 3.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없다”, “그에 따라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 구조물을 세운 것은 문제”라고 항의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과학기지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항의를 했으며 2005년에는 해양감시기를 사용, 5차례나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9월 14일에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쑤엔자오는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다”라며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측의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버전’ 처럼 이어도를 쑤엔자오란 이름을 써 강조하면서 “중국은 쑤엔자오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중국이 공식적인 경로로 이어도를 해양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를 보였다. 중국이 2003년 우리의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고위 당국자가 이어도의 한국 지배권을 공식 부인하기는 이때가 처음이다.

2006년 12월 14일에는 또다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어도가 한·중 양국에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동중국해 북부 해역의 수중 암초로서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이 이곳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반대하며 그러한 행동은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은 2006년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생 왕젠싱(王建興, 32)의 주도로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기지를 철거시키고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확보키 위한 〈중화쑤엔자오보위협회(中華保衛蘇岩礁協會)〉가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회는 사이트를 개설,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선박을 보내 암초에 ‘중국령’이라고 새겨진 동패와 석비를 세울 계획까지 내놓았다.

왕젠싱은 2006년 8월까지도 중국 정부는 한국이 쑤엔자오를 점거한 사실을 중국인민들에게 공개치 않고

있었다며 “중국 인민은 한국정부가 쑤엔자오 위에 설치한 모든 불법 건축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주주간」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시설을 설치했으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 ‘행동을 하되 말을 하지 않는다(只做不說)’는 정책을 견지했으며 중국의 언론들도 이에 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이 나서 중국의 주권 회복을 벌이겠다고 주장하는 왕젠싱은 이미 중국 대륙에서 〈쑤엔자오보위〉 지원자가 300여명에 이르렀다며 서둘러 ‘쑤엔자오보위협회’를 공식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화쑤엔자오보위협회(中華保衛蘇岩礁協會)〉가 민간 단체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왕젠싱이 사회과학원 소속임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역사에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지우려는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수행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은 바로 〈사회과학원〉 산하에 있다. 〈사회과학원〉은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이며 중국의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이다. 이 일련의 사태 흐름은 중국이 그동안 물밑에서 ‘이어도 공정’을 준비해 왔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민간단체 결성은 공정의 본격화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2006년 12월 3일자 24쪽부터 30쪽에 게재된 이어도기사를 보자. 먼저 현 중국 외교부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 대화와 협상으로 풀 것이다. 쑤엔자오는 바다 밑에 있는 암초다. 중국과 한국은 영토분쟁이 없다. 중국정부는 한국정부와 여러 차례 교섭했으며, 한국정부는 쑤엔자오가 EEZ 회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

중국의 이어도공정을 위한 활동은 2007년에 와서 국가기관에 의해 보다 강화되기 시작한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기관지격인 격월간 「해양개발과 관리」 최근호(2007년 제3호)에 실린 〈중국해감동해총대(中國海監東海總隊) 위즈룽(郁志榮) 부총대장의 “한국의 쑤엔자오 해양·환경관측플랫폼 건조에 대한 생각”과 지대공미사일 연구기관인 〈창평(長峰)그룹〉

주관으로 발간되는 월간지 「군사문적(軍事文摘)」 3월 호에 실린 천쯔광(陳家光)의 “쑨엔자오: 한국에 잠식되는 중국의 해양국토”라는 글은 최근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는 정치적·군사적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필자들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이어도 과학기지가 “공공서비스와 과학연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구조물이다”,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 분인 쑨엔자오가 현재 소리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해감동해총대>는 이어도 해역이 포함되는 동중국해 북부에 대한 해양 감시·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해양국 동해분국> 소속 기관이고 <창평그룹>은 중국 우주항공국(航天局) 산하의 우주항공분야 국유기업인 <중국항공공업총공사>의 여러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다.

위즈롱은 한국이 이어도 과학기지를 영해 기점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주변에 군사시설을 늘리거나 오락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과학기지에 짙은 의혹의 시선을 들렸다. 또 천쯔광은 이어도가 중국 대륙붕에 있고 중국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토이고 따라서 외국이 전진기지를 세우거나 주변해역에서 석유를 채굴할 권리가 없으면서 “이를 점령하는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 침범”이라는 식으로 이어도를 아예 중국 영토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위즈롱은 계속해서 “이어도 과학기지 상감판 꼭대기에 한국 국기인 태극기가 게양돼 있고 그 서쪽 벽면에도 태극기가 인쇄돼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해상 인공건축물이나 과학연구기지,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설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감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태극기 게양이 현재 자국의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거나 앞으로 주권을 주장하려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면서 이어도가 “제주도로부터 149km나 떨어져 있고 중·한 양국 간에 EEZ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강력한 ‘주권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에 군사

기지를 세워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이 바로 독도에 대한 ‘주권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논리를 폈다. 한국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장기간의 연구와 주도면밀한 연구를 거쳐 적당한 시기와 지점을 선택하고 유리한 정세에 기대어 공공서비스와 과학연구의 모자를 씌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시설”이라는 식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산하 <난징[南京]육군지휘학원> 작전지휘교육연구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천쯔광은 먼저 “조국대륙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쑨엔자오가 현재 한국에 침탈당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언사부터 내놓았다. 그는 이어도 주변이 역사적으로 중국 어민들의 어장이었고, 한·중 양국이 모두 EEZ를 주장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도 옛 양쯔강 삼각주의 해저구릉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은 중국 영토주권을 침범한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청나라 말기인 1880-1890년에 이미 이어도의 위치가 해도에 명확하게 표시됐고, 이어도 해역이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해역이라는 데 대해 한국과 일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1963년 국제사회에 이어도 해역에 대한 영해주권을 선포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은 2007년 12월 24일에 다시 보게 되는데, 중국의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해양신식망(海洋新息網) 홈페이지(www.coi.gov.cn) 해양문화 코너에서 보인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쑨엔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며 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천쯔광은 한국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왜곡, 이어도가 1901년 영국의 상선에 의해 처음 발견돼 ‘Socotra Rock’이라 불렀다고 선전하는 동시에 역사학자 등을 동원해 이어도가 제주도 어민들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이라고 하는 식의 신화와 전설을 날조 조작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6.25전쟁 휴전 후 중국측에 백두산 천지와 압록강 입구의 신도를 요구해 양보받았고, “한국

은 동쪽으로 영역 확장을 개시해 일본해에서 독도를 쟁탈함으로써 동쪽 강역을 개척한 다음 이번에는 남쪽 강역 영토 확장에 들어가 독도방식을 중국 동해(동중국해)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천쯔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요지인 상하이에서 이처럼 가까이 있는 중국의 지반 위에 영구적인 군사시설 건설을 허용하면 중국은 그 목구멍을 찢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는 말로 이어도 과학기지는 군사적 용도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http://news.hobbyworld.co.kr>).

그런데, 2008년 8월 25일 후진타오 방한을 앞두고 이어도가 중국의 영토라고 자료까지 제시하며 주장했던 상기의 중국 <해양신식망>은 8월 13일자로 자신들의 주장을 삭제 철회했다. 대신에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을 대신 싣고 있다. 2007년 12월 24일자 자료에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던 이 사이트의 이같은 조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더 이상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은 중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고 한국의 언론들은 평하였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날 게재된 내용은 수정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더 이상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영토 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확정문제라는 데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그런데 문제의 그 사이트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 8월 14일에는 종전대로 이어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다시 주장한다. 이유는 <국가해양국>이 수정안을 만들어 중국 <외교부>에 보내면서 ‘이어도는 중국 땅’이란 글도 삭제했는데 외교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즉시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하자 15일자에는 “쑤옌자오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 귀속 문제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본을 내었다. 중국의 이러한 조령모개

식의 외교행태에 대해 한국의 외교 당국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것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 문제가 현안이 되는 것을 중국측이 꺼려 내렸을 것”(Joins, 2008.08.17 04:25)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13차에 걸친 양국 해양경계회담에서도 이어도는 회담 의제의 2% 정도에 불과했다”, “양측은 이어도가 영토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2006년 합의했다”(Joins, 2008.08.17, 04:25)고 말하면서 중국이 사이트의 글을 삭제한 것은 영토적 야욕이 없으며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1996년 이후 경계회담 때마다 중국은 당치 않는 해안선 길이와 연안 인구 등을 고려해, 즉 「형평의 원칙」에 의해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www.freezone.co.kr](http://www.freezone.co.kr), 2006.09.20, 10:59).

따라서 중국이 한·중 합의와 다른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 글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제동을 건 점 등은 중국의 영토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패권국가를 이루려는 것이 중국의 야심이다. 특히 육지영토 면적이 세계 3위이나 해양영토 면적이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으로서는 영토 자체의 확장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 한국에는 유화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유화책도 순간이었다. 후진타오의 한국방문이 끝나 6개월(2009년 3월 말)이 되자마자 중국 정부는 외교부 내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초대 사장(국장)에 닝푸쿠이(寧賦魁) 전 주한 중국대사를 임명하는 등 최근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부연하지만, 중국은 2003년에 삼황오제의 신화를 역사화(사실적인 문헌사화)하는 작업인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sup>1)</sup>을 시작하더니 결국은 동북공정에 이어 해양변강공정(海洋邊疆工程)의 일환으로 이어도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변강공정은 하이난다오(海南島)와 오키나와·필리핀 등을 중국의 고대사와 연관시키고자 시작된 역사지리공정이다(<http://blog.joins.com>).

## 2) 국제 해양경계획정 이론과 한국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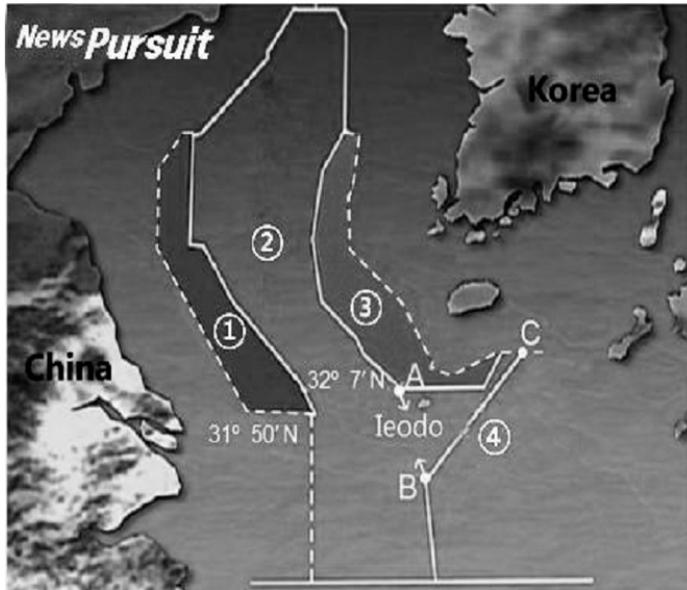
중국은 이어도와 그 해역이 자국의 영토주권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주장들에 따른 개별적이든 정합적이든 어떤 객관적 논거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주장들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중국의 공허한 주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겠다. 여기서의 반론은 역으로 이어도에 한국의 주권적 권리(sovvereign right)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쑤엔자오는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이며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측의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어도에 대한 시원적 권리에 의해 영토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측의 위 첫 번째 주장은 부분적으로 —“쑤엔자오(이어도)는 수중암초이므로” 하는 부분은—국제법적으로 보아도 타당한 주장이다. 그 이유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서의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하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06년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영토문제의 대상이 아닌 해양경계 획정상의 문제라는 데 합의한 바 있기도 하다. 이어도는 분명히 섬 아닌 간출암으로서의 암초다.

그러면 무엇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어도를 분쟁의 빌



- ① Chinese EEZ assigned from the China-Korea co-management Zone [since 2005]
- ② Korea-China Tentative Co-management Zone (until the EEZs are fixed)
- ③ Korean EEZ assigned from the Korea-China co-management Zone [since 2005]
- ④ North-west boundary of the Korea-Japan co-management Zone beyond the EEZs (B-C)

Figure 4. Map of the Korean-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 2001.  
2001년 한·중어업협정도. (Source: SBS broadcasting materials)

미를 삼도록 했는가?

중국이 이어도 분쟁의 빌미로 삼은 것은 과학기지가 세워진 이어도가 한국이 언제인가는 영해나 EEZ의 기선을 삼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만약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건립되지 않았으면 '이어도 분쟁'은 '이어도해역 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기형(奇形)의 경계선에 의해 이어도가 「잠정조치수역」, 즉 공해상으로 밀려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Figure 4를 보면 한·중잠정조치수역의 경계를 A와 B를 잇는 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어도가 위치한 △형 A, B, C에 해당하는 수역을 기형적 획선에 의해 공해가 되도록 하였다.

중국은 시종 일관 해양과학기지를 거론하며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고 있지만, 이러한 경계선 획정은 후술하겠지만, 당시 한국 외교실무팀(당시 외교통상부차관이었으며 현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의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정책 판단에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한국이 건립한 것은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가?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세운 것은 국제법상 통용되는, 서로 마주보는 대향국(對向國)간에 적용되는 중간선(등거리)원칙에 의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중간선(등거리)원칙이란 용어는 해양경계선 획정의 분쟁이 일기 시작한 근현대 국가에 이르서의 영토주권상의 개념이지만 그 사상은 그 이전에 인류 모두가 공인하는 목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이어도(해역)에 대해 시원적 권리(始原的權利)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근현대 이전에 자연지리학적으로나 인문지리학 내지 법지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이어도에 대해 한국은 영토로서의 시원적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세운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시원적 권리로서 이어도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는 중국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점유나 무주지전점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취득된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도에 한국의 해양과학기지를 세운 것은 한국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의한 것이다.

둘째, 이 부근 해역은 중국의 산둥, 강소, 절강, 복건, 대만 등 5개성의 어민들이 예로부터 어업활동을 하던 어장으로, 근대 이래, 일본, 한국을 포함해 그 어떤 국가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중국 연안 어민들은 수천년 전부터 이 암초를 알고 있었다. 「산해경, 대황동경」 제14권(기원전 475~221년)을 보면, “東海之外……, 大荒之中 有山名曰 天蘇山(동해 바깥 쪽에, …… , 멀고 먼 세상 끝에 의천소산(天蘇山)이라는 산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산이 바로 蘇巖礁로 동해 멀리 있다고 기록한 것이 사실과 부합된다. 1880~1890년 청나라 말기 북양함대가 해도에 蘇巖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다.

산해경(山海經)에도 신주(神州)<sup>2)</sup>와 동해봉래(東海蓬萊)<sup>3)</sup> 사이에 바다 밑 선산(仙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수당(隋唐)이래 고려·일본 조공사신과 유학생들, 우리나라 인사들도 이 암초를 봤으며, 역사기록을 봐도 이 암초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근거를 B.C. 475~B.C. 221년 경부터 쑨엔자오가 중국역사에 나타나는 바, 즉 《山海經》에 “東海之外……, 大荒之中, 有山名曰 獐天蘇山”(동해 밖, 대황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의천소산이라 한다)이라는 문구에서 찾는다. 그들은 그 문구의 끝 蘇山이 바로 蘇巖과 같으므로 이어도를 자오(礁)에 쑨엔(蘇岩)을 붙여 쑨엔자오라 이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성식 교수는 중국이 산해경 신화를 이어도 전설에 맞붙을 놓기 위하여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가감하여 급조하였다고 한다.

조성식은 구체적으로 중국측의 지명 날조 왜곡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산해경의 원문에는 ‘…… 獐天蘇山’이 아니라 ‘…… 獐天蘇門’이라 되어 있음에도 蘇門의 ‘門’을 ‘山’이라 건강부회적으로 해석하고나서 이 ‘山’을 다시 ‘巖’이라고 치장하여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높아서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뜻인 ‘獐天’을 해석하기를 ‘하늘 가 아득한 곳’이라고 해석하

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웅색하다는 것이다(Cho, 2008).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쑨엔자오란 명칭 부여에는 정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왜곡 날조된 무국적 지명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산해경에도 신주<sup>4)</sup>와 동해봉래 사이에 바다 밑 선산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라며 ‘선산’ 이 소암초임을 주장하려 한다. 중국의 신화 왜곡은 여기서 극에 달한다.

《산해경》에 ‘東海蓬萊’란 문구는 없다. 다만 ‘蓬萊山 在海中’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해내동경이 아닌 해내북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내’란 중국의 영역권 내를 의미하며, ‘북경’이란 지리적으로 ‘발해’와 관련된다. 해내북경에 달려 있는 주(註)에는 분명히 ‘선인이 살고 있고(上有仙人)’ ‘발해 가운데 있다(在渤海中也)’고 표현하고 있다. 《史記》봉선서(封禪書)에도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 있다.…… 여러 신선과 불사약이 있다. 그곳의 물건이나 금수는 모두 희며, 황금과 백은으로 궁궐을 지었다(蓬萊 方丈瀛州 此三神山者 在渤海中 蓋嘗有至者 諸仙人及不死藥在焉其物禽獸盡白 而黃金白銀爲宮闕)”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渤海’는 해내경에서 보이는 北海(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天壽)와 동일한 것으로 봉래산이 설령 동해에 있다하더라도 그 동해는 오늘날의 동중국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황해를 일컫는 바다 이름이었다(<http://www.bc8937.pe.net>). 봉래산과 기천소문을 쑨엔자오(이어도)와 일치시키려는 중국의 왜곡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셋째, 민국시대 중국 지질학자들이 이 압초가 중국대륙판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어도가 중국 대륙붕에 있고 중국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토이고 따라서 외국이 전진기지를 세우거나 주변해역에서 석유를 채굴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점령하는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 침범”이다.

민국시대(民國時代)라면 19세기 후반으로서 즉, 중

국이 아편전쟁에 의해 개항이 되고 태평천국운동, 양무·변법운동, 의화단운동 등 중국의 혼란한 근대 변혁기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 혼란기에 그것도 바다를 등한시하는 전통을 가진 중국이 115만 km<sup>2</sup>에 이르는 광대한 해저에 대해 과연 지질조사를 해서 이어도 해저가 중국의 대륙판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지질학자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해저지질조사를 했는가? 그 입증 자료는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논거 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제국의 패권주의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어도가 중국에 기원한 대륙붕에 있고 중국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토”라고 하는데, 이어도가 위치하는 동중국해는 거의가 대륙붕을 이루지만, 동중국해 대륙붕이 오직 중국대륙에만 속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어도가 중국의 200해리 내에는 존재하고 한국의 200해리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질구조와 지형형성사, 그리고 형태로 볼 때 황해와 동중국해는 유라시아판 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공유대륙붕인 것이다. 동중국해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한반도와 중국대륙, 일본 류큐열도로 둘러싸인, 후빙기의 해침에 의해 형성된 동아시아중해인 것이다.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빙기인 뷔름빙기 이후의 후빙기가 시작되기 전 1만년 전까지 동아시아중해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 정도 하강한 상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는 하나의 육지로 연결되어 동아시아대륙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열도는 이후 동아시아대륙과 분리되어 환태평양조산대의 신기조산대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한국은 중국과 동일하게 안정지괴와 고기조산대로서의 공통된 지질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해양경계를 중간선(등거리)원칙이 아닌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자연연장설)을 주장하는 중국은 또한 황해와 양자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실트 선을 따라서 EEZ경계선을 그어야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동중국해 대륙붕의 3분의 2가 중국에 속하게 되는데 심사숙고함이 없이 중국은 실제로 그렇게 성급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저지형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관성 없이 중국은 베트남과의 통킹만 경계확정시는 해저지형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주장 관철해서 2004년 6월 초 양국은 통킹만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통킹만 대륙붕은 모양상 3분의 2가 베트남 쪽에, 3분의 1이 중국 쪽에 속해 있는데 양국간의 경계 획정에서는 이 같은 해저지형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이 이와 같이 이중적인 잣대로 해양을 구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난할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이어도를 '유효점령'에 의해 영토화한 바가 없다. 그것은 이어도가 바다 속의 간출암으로서의 암초이기 때문이었다. 다만, 두 가지 점, 즉 이어도는 한국인(제주인)의 이어도 전설이나 소설, 시, 그림, 음악 등 문예작품 등에서의 토대(팩트)가 되었다는 「문화연관론」, 이어도의 위치가 중국보다 한국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시원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종물이론」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한국의 영토화가 되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

문화연관론은 다른 공간에서 이미 논했기 때문에 종물이론을 보기로 하자. 이어도는 위치로 보나 형성과정으로 보나 한반도(제주도)와 구조적으로 지리적 연속성을 갖는다. 지리적 연속성으로 보았을 때, 환언하면 중간선(등거리)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주물(主物)인 한반도(제주도)의 종물(從物)로서 한국의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리적 연속성 혹은 지리적 근접성은 원래 유효한 점령이 수행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닌 공간을 취득하기 위해 주장된 이론이다. 지리적 연속성이란 일정한 공간이 그 관할권 취득을 주장하는 나라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법적 이론으로는 종물이론이 있다. 종물은 주물에 따른다는 일반 법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의 영토와 그의 자연적 연장으로 생각되는 공간은 일종의 주·종물관계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종물인 비국가적 영토는 주물인 국가 영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간선(등거리) 원칙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적 종물이론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은 역사학자 등을 동원해 이어도가 제주도 어민들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이라고 하는 식의 신화를 날조 조작했다.

어느 국가사회든 과학적 인구조사에 의한 호적류의 문서작성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전근대에서는 성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성명이 있다하더라도 한 나라의 커녕 한 지역내에서조차 한정된 범위내에서 통용되었기 때문에 저명인사라도 국제화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지명도 마찬가지로 이어도의 명칭은 제주해민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 왔고 그것이 세간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1901년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 해군의 소코트라호가 이어도에 난파되면서다. 이후 이어도를 'Socotra rock', '하로우수', '파랑도' 등의 이름이 나타났지만, 이런 이름들은 고대로 구전 전승되는 이어도 전설, 문예물 등과 같은 제주문화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제주문화를 알고 호칭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요구도 할 수 있는 당시 상황도 아니다. 제주인들 역시 이어도가 이어도인 것을 그들에게 굳이 제주문화를 알려 호칭하라고 할 시대적 상황은 아니었다.

이어도항로를 앞마당처럼 오가며 이를 토대로 전설을 만들어낸 고대 제주해민들로서는 이방인들이 붙인 이어도에 대한 이름은 개인이 함부로 작개명 호칭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해민들은, 이를테면 자기 집에 기르는 개를 지나가는 개인이 멋대로 이름(Socotra rock)을 지어 부른 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중국처럼 자의적으로 남의 집 개에다 이름(蘇岩礁)을 붙여 끌고 가려는 것도 몰랐었다.

이어도는 세속적인 지리명칭이자, 진실의 지리명칭이다. 이어도 전설의 발생 토대로 볼 때 그것이 제주해민들의 서사(敍事)일 수 있음이 인정되면 그것은 곧 이어도의 사실 존재가 '지리적 진실'이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어도는 흔히 유토피아 사상들이 그러하듯이 삶과 죽음이 만나 공존하는 양가성의 지리적 장소이다. 거주와 구축하기, 땅과 하늘 그리고 신과 언젠가는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융합이 완성되면 지리적 공간은 장소화되면서 본질적으로 신성해진다.

문화적으로 이어도는 압초 자체로서가 아니라 생과 사가 만나는 신성한 장소의 ‘형상’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지리적 사물로서의 이어도는 인문적으로 ‘읽혀졌다’. 그 압초는 배후에 있는 의미를 드러냈다. 이어도는 죽은자에게 다가가는 사다리이자, 혼적이자, 길이였다. 그리고 지리적 사물로서의 이어도는 ‘암호문’이었다. 따라서 제주해민들은 압초에서 실천적·기술적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위한 미적 행위를 가한 것이었다. 엘리아데(Eliade)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신성하고 신화적인 설화지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세속적 지리와 반대되는, 사실상 유일한 ‘진실(real)의 지리’ 이다라고 했다. 세속적 지리는 팩션에 바탕한 ‘객관적’ 성격의 지리인데, 추상적이고 비본질적이다. 이어도 전설 내용과 이어도의 지리적 실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즉, 존재와 사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유는 종교적 혹은 영성적 믿음과 관련된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존재는 과학적 혹은 감각적 인식과 관련된 절대적인 개념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실제하는 대상(존재)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갖는 상징성(사유)에 열광하기 마련이지만 히말라야 설산 너머에 있다는 샹그릴라(Shangri-La)<sup>5)</sup>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을 다시 본 사람은 이어도 전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없었다. 샹그릴라는 성스러운 말미 해 4월 보름달이 뜨는 시각에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도처의 부처(高麗)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어도도 아무 때나 아닌 대체로 춘·추분에만 엿볼 수 있는 ‘대양 중’의 수중 여(硯)이다. 환상의 섬, 신비의 섬인 이어도를 실재한다고 한국측이 조작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인들 스스로는 불가사의 한 그리고 신비한 샹그릴라는 실재한다고 공식화했다. 중국측의 그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역사자료나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어도 전설에서 이어도라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없었다면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민담(folktale)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신화는 주인공이 신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종교적인 숭고함을 지향한다. 그리고 민담은 대체로 낙천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을 갖는다. 그러나 전설은 주인공이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좌절하기에 운명론적 비극성에 도달한다. 이어도 전설에 운명론적

비극성이 존재함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도는 신화 아닌 전설이다. 이어도는 ‘신화의 섬’이 아니라 ‘전설의 섬’이다. 이어도 전설 자체만은 사유이나 이어도라는 ‘여’는 존재이다.

다섯째, 세계의 영토 강역은 “누구랑 가까우면 누구의 것이다”라는 간단한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발전과 정치 경제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신도(薪島)는 중국과 더 가깝지만 왜 북한에 속하는 것인가? 대마도는 한국에 더 가까운데 어떻게 일본에 속하는 것인가?

중국의 역사에 이어도가 기록되고 검증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은 아직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있으면 이어도는 마땅히 중국이 영유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적 권원 그리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유가 된다.

중국 민간인들에 의한 위의 주장에 대해 “대항국 사이가 400해리가 안 되는 내대륙붕(內大陸棚, inner-continental shelf)<sup>6)</sup>에서는 관련 국가간의 해양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지질학적인 또는 지형학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중간선(등거리) 원칙에 의해 해양경계선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제해양법에서 각종 사법적 판결과 국가 관행이 일관되게 따르고 있는 원칙이다.” 그리고 “해양 경계 획정이나 영토의 권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제해양법은 ‘누구랑 가까우면 누구의 것이다’라는 간단한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단지 이어도가 중국 서산다오보다 제주도과 가까워서 한국에 속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여 이어도가 한국 쪽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한다(Kim, 2008). 참고하면 분쟁수역의 거리, 즉 마라도와 서산다오 사이의 거리는 236해리(436km)밖에 되지 않는다(마라도~이어도=81해리, 서산다오~이어도=155해리). 따라서 이 경우는 국제관례에 따라 당연히 중간선(등거리) 원칙에 의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진다.

중국측이 거론하는 하중도인 신도(薪島)는 한·중

양국의 본토만을 기준할 때는 물론 중국 쪽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은 지리학에 무지한 평면적인 주장이고 압록강과 같은 국제하천인 경우의 경계는 입체적, 즉 하천의 침식사면에 근접하여 형성되는 깊은 골의 연장선인 탈베그를 따라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탈베그는 곧 가항수로를 의미한다. 신도와 한국(북한)본토와는 갯벌 위를 지나는 야트막한 용천(龍川)이 지나고 있을 뿐이지만 중국 본토와는 깊고 넓은 압록강의 본류가 가로 놓여 중국과의 접근성을 낮추었기 때문에 전통적(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섬이다. 부연하자면, 압록강 자체가 거대한 탈베그가 되기 때문에 현대 해양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가 됨은 물론 그로 인한 역사적으로 한국이 실효지배를 해 와서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주권적 권원을 갖게 된다.

대마도에 대한 중국인의 지적은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지적이 된다. 대마도 역시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영토가 재단된 탓도 있지만 조선의 근시안적 영토관리로 인해 일본의 영토가 되고 만 것이다.<sup>7)</sup> 대마도는 지적한 대로 규슈까지의 거리는 약 132km되나 한반도와와의 거리는 약 49.5km밖에 되지 않는다.

#### 여섯째,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비례 등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해양경계는 획정되어야 한다.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이론’을 이미 ‘과거에 속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은, 200해리 미만의 ‘좁은 대륙붕’의 국가간 분쟁인 경우에만 국한된다. 그러나 분쟁국간의 바다 간격이 200해리가 넘거나 대륙 변계가 200해리 이원(以遠)으로 계속되는 이른바 ‘광역 대륙붕’의 경우에는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이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대륙붕의 한계를 정할 때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기준을 참작하여 해양 경계를 정하게 되어 있다(<http://www.kfprogress.org>). 이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EEZ회담에서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경계로 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중국측은 “대륙붕의 기원과 수심 외에 해안선의 길이<sup>8)</sup>나 인구 수 등을 고려해 경계로 하자”는 기론역설을 폈다. 이른바 「형평의 원칙」에 의해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충분히 개발해 내지 못한 듯하다. 오직 「중심선(등거리) 원칙」(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8)만이 국제관례라며 버티기를 하였다. 그러나 중심선(등거리) 원칙은 바다 경계를 획정하는 여러 개 원칙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국제해양법에서는 중국의 주장대로 형평의 원칙에 경사된 사례가 있었다.

중국 주장에서 대륙붕(자연) 연장선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그리고 인구수는 국가간 경계획정에서 거론된 사례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연안선의 길이만을 가지고 논하기로 한다.

중국의 해안선의 총길이는 3만 2,000km(세계 3위)로서 2,413km(53위)의 해안선을 갖는 한국의 15배나 된다. 한·중 양국은 이미 이러한 해안선의 길이, 3위와 53위에 부합된 해양을 관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된 해역에 관해서 중국측은 중국 쪽 해안선의 길이가 821km이며 한국 쪽은 659km이므로 그 비율이 1:0.8이라면서 0.2만큼 더 갖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0.2를 더 가지면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제수로기구(IHO)에 의하면 황해의 범위는 양자강 하구 북각(北角)과 제주도 서단을 연결하는 일종의 폐쇄선을 동중국해와의 경계로 삼고 있지만 이 해역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해안선의 길이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직선기선으로 비교하면 중국의 해안선이 한국의 그것에 비해 1.39배 길고 통상기선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의 해안선이 중국의 그것보다 1.18배가 길다(Kim, 2008). 두 개의 값을 평균해도 1:1.224로 한국의 해안선의 길이가 중국보다 길게 된다. 문제는 중국측이 영해 획정선에서 보듯이 국제규범에 한참 벗어나게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와 같은 주장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해안선의 길이를 참고한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 고무받아 나온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판결은 정면으로 서로 마주보는 ‘대항국’이 아닌 이웃해 붙어 있는 ‘인접국’ 간에 있어 해안의 일반적 형상이 ‘오목한’ 지리적 특성에 주목해 해양경계 획정 시 ‘해안선

길이'란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항국 사이에 있는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에 형평의 기준 등을 적용하려는 것은 법리의 오행해,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Brown, 1983).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는, 대항국간의 경계는 중간선으로(1항), 인접국간의 경계는 등거리선으로(2항)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의 판결에서 ICJ도 역시 이 두 경우를 구별하여 논하고 있다(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9).

위치적으로 인접(접경)국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한 해양경계선 획정 사건은 「북해대륙붕사건」, 「튀니지아·리비아간대륙붕사건」, 「캐나다·미국간 Maine만사건」 등이 있는데 분쟁의 효시로서,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으로서는 「북해대륙붕사건」이다. 이 사건을 사례로 하여 지리적인 해안선의 형태로 인한 국가간에 해양경계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써 한·중간의 장래 있을 이어도 영유권과 관련된 동중국해의 경계획정시에 평화로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Friedman, 1970).

#### 4. 결론

이어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민중들의 어로활동을 거론하며 '역사적으로' 서로 우리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료는 어느 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화와 같이 제시되는 자료라고 해도 견강부회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시원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가 어느 쪽에 의해 행사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여기에 해양법에 따른 국가간 경계획정의 방법, 즉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의 적용 논리를 동중국해라는 구체적인 지리적 사실에 찾아 정합적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중국은 '자연연장설' 즉, 대륙의 퇴적물인 실트를 근거로 동중국해 대륙붕 대부분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하나 동중국해의 기저는 유라시아판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지질사적으로 한반도에 의한 그 대륙붕의 형성 기여도는 중국대륙과 동일하다. 이어도는 중국으로

서는 '신화의 섬'이지만 한국으로서는 구체적 팩션이 제시되는 '전설의 섬'으로 존재하기에 역사적 권원 이전에 이미 문화적 권원(시원적 권원)이 한국측에 있다. 덧붙인다면 이어도는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의 기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획정을 해야 한다.

#### 주

- 1) 5년여의 작업을 거쳐 중국 역사학계는 전한시대의 사가 사마천조차 포기해 버린 하·상·주 3대 왕조의 연대를 확정했다. 하왕조는 기원전 2070년에 시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 무렵에 건국했다는 학설이 만들어졌다. 또 주왕조의 시작은 기원전 1046년으로 각각 설정됐다. 탐원공정의 궁극적 지향점은 신화와 전설을 역사 영역으로 포섭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라는 실체를 무려 1만 년 전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2) 예부터 중국을 "신주(神州)"라 불렀다.
- 3) 중국 신선사상에서 말하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기원전으로는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발해(渤海) 연안에 연(燕)·제(齊)나라의 방사(方士; 신선의 술법을 닮은 사람)들이 신기루 현상과 신선술을 억지로 맞추어 주장한 것이다. 《사기(史記)》등에 따르면 발해 가운데에는 봉래·방장(方丈)·영주(瀛州)의 삼신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신선이 살고 죽지 않는 약이 있으며 산위의 새와 짐승은 모두 순백색이고 신선이 사는 궁전은 금·은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 이 삼신산은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에 있고 속인(俗人)이 가까이 가면 바람이 불어와 갈 수 없다 한다. 연·제나라의 여러 왕들은 불로불사의 신약을 얻기 위해 이 신산을 찾게 했으며 실제로 진(秦)나라의 시황제는 방사 서복(徐福)을 보냈다.
- 4) 여기서의 "신주(神州)" 또한 중국 자체를 일컫는다.
- 5) 오늘날 분리독립을 쟁취하려는 티베트인들의 불교(밀교) 경전(칼라차크라 탄트라)에 불국정토 이상향으로서의 상발라(Shamballah: 쉘발라, '마음속의 해와 달'이라는 뜻)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상발라가 이상향 상그릴라(Shangri-La)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영국의 힐턴(Hilton, James)이 1933년 발표한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에 의해서다. 이어도를 세계에 알린 이청준의 《이어도》 소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히말라야 설산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상그릴라의 실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지만 최종 결말은 미국인 탐

- 협가 베이커와 다른 두 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8년 이를 후원한 <미국지리학회>는 베이커의 공로를 인정해 그를 '밀레니엄 시대의 탐험가' 6인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이에 당당히 중국 정부는 1997년 9월 14일 '샹그릴라'(Shangri-La)라는 이상향을 운남성 쑹미엔(中甸)현 대협곡에 실재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쑹미엔'의 지명을 샹그릴라라고 바꾸게 된다.
- 6) 200해리 범위를 초과하는 외대륙붕(外大陸棚, outer-continental shelf) 혹은 광역대륙붕이라고도 한다
- 7)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제정부의 관리가 쓰시마를 통치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쓰시마)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를 시켜 1948년 9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949년 1월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1] [2]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 8) 일본은 2만 9,751km의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세계 6위가 된다.

### 참고문헌

Brown, E. D., 1983,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Recent trends,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54(2), 143-150.

Bureau of Maritime Policy, 2005, *Construc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海洋政策局, 2005, 이어도 綜合海洋科學基地 構築現況).

Friedman, W., 1970,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A critiqu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4(2), 229-240.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8, *Common Rejoinder(30 Aug. 1968) by Denmark and Netherlands to ICJ para54, 58, and 75*,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eong, D. G. and Sim, J. S., 2001, Formation and

evolution of Ieodo (Socotra Rocks),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37(7), 537-538 (in Korean).

Jeong, J. S.(translation), 1993, *Shan Hai Jing*, Mineumsa, Seoul (鄭在書 譯註, 1993, 『山海經』, 民音社, 서울).

Kim, Y. G., 2008, *Solution Methods of Ieodo Issue in Maritime La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영구, 2008,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동북아역사재단).

Mun, I. J., 2008, Research and forecast survey of typhoon arrived at Korean Peninsula with Ieodo Research Station, *2008 Reseach Seminar of Ieodo* (in Korean).

Sim, J. S. and Min, I. G., 2007, Construc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and analyses of observation data, *2007 Ieodo Seminar,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in Korean).

Song, S. D., 2007a, Ieodotopia, meeting of myth and science, *What is Ieodo to us*, Haenyeo Museum, 59-86 (in Korean).

Song, S. D., 2007b, Geographical review of project on Ieodo, *2007 Ieodo Seminar*,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16-33 (in Korean).

Song, S. D., 2009, Ieodotopia in Jejuian seamanship,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1(1), 170-190 (in Korean).

교신: 송성대,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6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이메일: songsd@jejunu.ac.kr, 전화: 064-754-3231, 팩스: 064-725-4053)

Correspondence: Sungdae So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90-756, Korea (e-mail: songsd@jejunu.ac.kr, phone: +82-64-754-3231)

최초투고일 2010. 5. 10  
수정일 2010. 5. 25  
최종접수일 2010. 5. 26